

이색 교정 열풍 “섹시해 보이고 싶어요”

기사입력 2011-12-27 15:07



[이송이 기자] 최근 성장기에 치아교정을 놓친 20~30대의 성인 교정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통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 이로 인해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교정을 고려하는 추세다. 또한 첫인상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갖기 위해 교정을 시도한다. 이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 못지않게 교정을 하는 이유다.

치아교정은 크게 순측교정, 설측교정, 투명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순측교정은 치아에 브라켓과 교정용 와이어를 장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브라켓이란 교정용 장치를 말하는데 재질에 따라 메탈, 레진, 세라믹으로 나뉜다.

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으로 교정용 브라켓과 와이어를 장치하는 방법이다. 설측교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교정장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장점을 가진 교정 방법이다.

투명교정은 치아 배열이 조금 어긋났거나 치아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 가벼운 부정교합인 경우에 교정 장치 부착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치아 표면에 장치를 붙이지 않으므로 덜 불편하고 심미적인 게 특징이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 잠시 빼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덧니를 심는 이색교정이 있다. 11월1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덧니 성형’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 덧니 성형에 390달러(한화 약 43만 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일본의 이색 덧니 성형 열풍을 보도한 바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덧니가 생기면 미용을 위해 치아를 뽑거나 치아교정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고른 치열을 가진 사람들도 덧니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일본에서의 덧니 성형 열풍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열풍은 뱀파이어처럼 송곳니를 돌출시켜 섹스어필의 요소로 기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우리나라에서는 덧니를 심는 교정이 보편화 되어 있진 않지만 귀여움과 섹시함을 원한다면 덧니를 심는 이색교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심미적인 효과만을 두고 덧니를 심는 것보다는 자신의 치아의 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

- ▶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겨울을 노려라!"**
- ▶ **연말 잦은 술자리 '알코올 다스리는 법'**
- ▶ **남자는 겨울에 유독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 ▶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 **송년회 핫 키워드 ‘핫팬츠’ ... 각선미 뽐내려면?**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06744>
